

지역공동체에 관한 연구의 접근방법과 쟁점

Approaches and Issues on the Research about Community Based on Residential Area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부 주거환경전공

강사 채혜원*

교수 홍형욱

Major of housing and Interior Design, KyungHee Univ.

Instructor : Chae, Hye-Won

Professor : Hong, Hyung-Ock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fine the concept of community based on the residential area and to review the issues on the research of community in related discipline area.

The discourse about community has been developed in the field of social psychology, regional planning and architecture, housing studies, and research results by NGO. These studies of community has been dealt with social interaction and norm as well as the physical aspects of community.

The research on community has been studied with the approach of structure and functionalism, systems theory approach, conflict theory approach, ecological approach, microsociological approach, and social construction approach. However, these approaches have not integrated together, but recognized community in a social or personal context. The social construction approach among these approaches suggest a useful conceptual framework for studying community in the point of view that social condition changes according to the autonomic individual.

Understanding of community will influence to establishing a community norm, to planning a communal space, and to developing strategies of community. And it also takes a important role to change the housing policy, institution and life style.

▲ 주요어(Key Words) : 지역공동체(community based on residential area), 공동체의식(sense of community), 주거규범(housing norm), 주거문화(housing culture)

1. 서론

1. 문제제기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주택부문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 나라의 총주택수(빈집 제외)는 10,959,342호로 집계되었으며, 이들 주택수 가운데 아파트가 전체의 47.7% (5,231천호)로 가장 많고, 다음이 단독주택 37.1%(4,069천호)로 나타났다. 매년 새로 지어지는 주택도 아파트가 차

지하는 비중은 점점 높아져 2000년 1년간 건설된 주택수 433,488호 가운데 아파트가 76%(331,579호)를 차지하여 다세대주택 13%(56,890호), 단독주택 8%(34,777호), 연립주택 2.4% (10,242호)와 전월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주택유형으로 자리하고 있다. 또한 2000년 현재 읍면지역에서 95년대비 주택수(주택제고)의 경우 아파트는 92.4% 증가하였으나 단독주택수는 6.3% 감소하였음을 볼 때, 아파트가 도시와 농촌을 불문하고 주택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였다(통계청). 그러나 아파트가 우리의 가장 주도적

* 주저자 : 채혜원(E-mail : chaenkim@unitel.co.kr)

인 주택유형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의 아파트 건설과정과 관련된 비판이 일고 있으며, 특히 공동체 측면의 주거생활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아파트는 분양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세차익으로 투기의 대상이 되었으며, 사용자치로서의 주거공간이라기 보다는 자산이득을 얻기 위한 소유의 개념으로 인식되었다는 점이다. 거주기간이 길수록 이웃관계와 주민들간의 결속이 강화된다고 볼 때(김남선·우룡, 1995; 김동우, 1985),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빈번한 주거이동은 아파트 내에서 지역사회의 유대를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둘째, 주거의 대량생산 및 집중건설로 인한 사생활의 침해에 대한 우려는 아파트 설계시 주호를 폐쇄적으로 계획하도록 하였다. 각 주호는 가족단위의 생활공간이 되어 배타적으로 분리되고, 개별 거주자 가족의 요구와 괴리된 상품성과 경제성 위주로 개발 보급된 주택형태와 평면은 가족공동체 더 나아가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동네로서의 공동체 의식을 상실하였고, 공동체에 대한 문화적인 접근을 접어둔 채 경제적·기술적인 측면만을 중시하였다(이연복, 1999; 공동주택연구회, 1997: 13). 이와 같은 상호 고립된 생활양식은 이웃간의 상호무관심과 개인주의, 그리고 이로 인한 소외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셋째, 공동생활 관련 법률과 제도가 아파트 주거생활에서 발생하는 여러 현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아파트 주민들은 자신의 이해관계 및 일상생활과 직결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봉착하게 된다. 특히 입주자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어 있는 관리비 사용 및 부과, 아파트 건물의 부실이나 하자문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 운영 등과 관련된 문제, 주차장이나 놀이터, 복도, 엘리베이터 등 공동공간의 이용과 관련된 문제, 부녀회나 노인회 등 소단위 주민조직 및 활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넷째, 설계시 거주예정자의 의견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대시설들이 계획됨으로써 아파트 거주자는 지역시설에 기반을 둔 활동에의 참여의식과 공동체 의식이 낮다는 점이다. 노인정·문화·체육시설 운영 등의 주민공동의 복지사업에 주민의 일부 소수만이 참여하고 있을 뿐이며, 대부분이 무관심하다(황한식, 1997). 입주자대표회의는 비민주적·비공개적·비합리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많으며, 공동주택 단지 내 입주인 임의단체인 자치부녀회, 체육동호회 등도 입주인 공동의 이익을 위한 활동보다 조직회원 위주의 활동에 안주하는 경향이 아직도 많다(심현천, 2000).

주택의 양적인 공급이 얼마나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는가는 아파트의 대량 공급이 진행되면서 줄곧 논의되어왔다. 주거생활에서 볼 때, 사회·공간적으로 배타적·폐쇄적인 아파트는 접지성 부족, 근린성 약화, 외부공간의 비활성화 등을 가중시키고 주민구성원간의 유대나 상호교류를 이끌어내지 못하였다. 아파트는 동일한 택

지에서 각 단위 주호를 갖고 단지 내의 공간과 시설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갖지만, 이점을 활용한 공동체 주거생활을 만들지 못했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한편, 최근 수년간 여러 학문 분야와 시민단체와 사회단체 등에서 아파트 지역공동체 형성에 초점을 둔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아파트 공동체생활에 대한 논의는 학자나 전문가들이 지향하는 사회적인 가치, 혹은 바람직한 주거생활을 위한 규범으로만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현대의 산업화 및 도시화 과정에서 사회관계의 합리화와 단편화는 목적지향적 특수관계로 분화됨에 따라 전통적인 지역공동체가 존재하기 어려우며 그 존재도 불필요하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 인구가 밀집된 도시에서 사람들은 짧은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므로 인간은 서로 부분적으로만 관계를 가지며 상호정서적 연대는 불가능하게 되며 다양한 인종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상대주의적 가치관과 규범적 관용성이 팽배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 입장이다(강대기, 2001: 92).

이제까지 논의되어온 공동체 비판론(권순복, 1989: 11)은 다음의 다섯 가지 논의로 분류된다. 첫째, 공동체는 무력하다는 것이다. 공동체가 있다고 해도 현대 사회의 복잡한 양상을 공동체가 지닌 특성으로 바꿀만한 힘을 지니고 있지 못하고 더욱 그 힘을 상실해간다는 것이다. 둘째, 공동체 不用論으로 공동체가 없으면 없는 대로 인간은 지낼 수 있다고 본다. 셋째, 공동체 소멸론으로 공동체의 기능과 사명은 끝났다는 관점이다. 넷째, 공동체 방임론으로 공동체는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공동체 逆用論으로 공동체는 본래의 목표와는 다른 것에 이용되는 경향이 있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개인 또는 집단이기주의가 여기에 속한다. 이와 같은 공동체 비판론(해체론)은 우리 나라의 대도시에도 적용되며 특히 거주자들이 상이한 욕구와 가치를 갖고 다양한 생활양식과 가치관, 개인적인 삶을 영위하는 아파트에서 거주자들이 그들 사이의 내면세계를 상호 이해하기 힘들다고 볼 때 더욱 일치하게 된다.

그러나 대도시에는 무수한 사람들이 살고, 실제로 도시인은 가정, 이웃에서 항상 한정된 사람들과 만나며 산다. 이들은 친밀감을 가지며 특수한 목적 달성이나 이익을 위해 상호작용을 하면서 공동체를 이룬다. 주거생활과 관련된 공동체 문제들은 다소 추상적이고 규범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현실을 무시한 채 이상에 대한 지나친 강조로 인해 피상적 또는 실험적인 것으로 여겨 질 수 있으나 매우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공동체 문화의 차원에서 주거를 기반으로 지역공동체의 개념과 역할을 탐색해보고, 지역공동체 분석을 위한 맥락과 담론을 근거로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그동안 어떤 이론적 접근방법이 이용되어 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제까지 대부분의 연구들이 지역공동체의 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각 접근방법이 갖는 한계를 쟁점으로 분석해냄으로써 그 결과는 지역공동체 이론의 구축과 공동체 규범 설정, 주거관리, 공동생활공간 계획, 프로그램 개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도서관 서베이에 의한 문헌고찰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자료를 수집한 후 내용연구를 통해 해석적으로 고찰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분석자료는 지역공동체와 관련된 보고서, 단행본, 석·박사학위논문과 국내의 학술지(한국가정관리학회지, 한국주거학회지, 대한건축학회지, 한국도시문제연구소 정기간행물, 지역사회개발학회지 1985년부터 2001년도까지 등)를 대상으로 하였다.

지역공동체에 관한 연구는 1990년대부터 그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대부분의 연구는 공동체 의식, 주민 공동생활공간 계획, 지역공동체 의식전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지역공동체에 대한 논의는 현대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방안으로서 사회적인 관념이자 가치체계로서 주거생활의 규범으로 연구되었다.

본 연구는 연구분야별 연구성과를 살펴보고 접근 방법론에 따른 쟁점을 그 연구내용으로 한다. 먼저 지역공동체 연구를 분류하기 위하여 연구대상분야별로 사회심리학 분야, 지역개발 및 건축학 분야, 주거학 분야, 지역사회운동 분야로 나누고 내용을 살펴보았다. 지역사회운동은 지역공동체를 연구하는 학문분야라기보다는 실제로 지역사회의 물적 토대에서 지역공동체적 의식과 가치를 형성하고자하는 운동적 성격을 갖고 있다. 지역사회운동 분야를 연구대상분야에 포함시킨 이유는 연구대상에 대한 해석적·비판적 관점을 중요시하고 실천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홍형욱, 2000a), 이제까지 각 학문분야가 지역공동체에 대하여 관념적이고 가치중립적인 해석을 함으로써 지역공동체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도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실천으로 연결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고 있는 것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공동체에 대한 관념적인 연구도 중요하지만 실천으로 연결되는 '사회운동'분야도 간과할 수 없다.

지역공동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적 도구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다양화된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중요한 방법론적 기초를 이루어 온 구조기능론적 접근, 시스템적 접근, 갈등론적 접근, 생태학적 접근, 미시사회학적 접근, 사회구성론적 접근으로 지역공동체는 어떻게 연구되었고 그 쟁점은 무엇인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기능론적 관점을 수용한 구조기능론적 접근과 시스템적 접근, 갈등론적 접근, 생태학적 접근은 사회변화에 주된 기능을 발휘하는 특정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한다(강대

기, 2001: 41). 미시사회학적 접근은 사회와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개별가구의 가치, 의식, 생활, 갈등, 적응의 문제를 다룸(홍형욱, 1992: 15)으로써, 거시적 사회상과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미시적인 면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관점이 된다. 또한 사회구성론적 접근은 개인과 사회적 조건의 변증법적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는 측면에서 주민 환경운동의 이론적 틀로 사용될 수 있다(최병두·이근행, 1999).

II. 지역공동체에 관한 선행 연구

지역공동체를 정의하는 데 먼저 공동체에 대한 개념을 살펴봄으로써 공동체와 지역공동체의 개념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동체는 포괄적 의미를 가진 개념으로 지리적 또는 특정집단에 대한 소속감과 공동의 목적을 가진 정신적 공동체를 지칭한다.

Poplin의 정의에 의하면 지역공동체는 일정한 지리적 영역을 배경으로 나타나는 공동체를 뜻하며, 지리적 영역에 구애됨이 없이 정신적 관계를 통해 나타나는 개념인 정신적 공동체와 구별된다(김남선·김만희, 2000).

Hillery는 공동체의 개념을 설명하는데 물리적 공간을 나타내는 지리적 영역(geographic area), 사회관계를 말해주는 사회적 상호작용(social interaction), 그리고 집단의식을 나타내는 공동의 연대(common tie)의 세 차원으로 분류하였다(강대기, 2001: 24). 따라서 이들 견해에 의하면 지역공동체는 지리적 영역의 차원이 강조된다.

한편 최재원(1993)은 지역사회와 공동체의 관계를 통하여 지역공동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지역사회는 공동체의 하위개념으로서 지역사회가 공동체 속에 포함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으며 지역사회라는 광범위한 개념 속에 지역사회의 필수조건으로서 공동체를 인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지역의 지리적 근접성, 사회적 상호작용, 공동 유대감의 비중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리 지칭될 수 있는데 세 가지 조건 중 지역사회 주민의 공동유대감이라는 심리적 특성을 강조하고자 할 때는 지역공동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더불어사는 지역사회 공동체'라는 말은 지역적 단위로 인식하기 보다는 지역주민들의 공동의식, 유대감을 부각시키고자 할 때 사용됨으로써 그 특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를 종합하면 지역공동체는 지리적 영역을 기반으로 하는 정신적 공동체라고 정의될 수 있으며, 마을·촌락·도시·거대도시 등 지역적 단위들을 대상으로 하여 일어나는 사회적 관계들, 즉 상호작용과 문화적 공유의 연대성을 가지는 집단이다. 즉 물리적으로 인접한 곳에 사는 사람들은 공통된 사회적 구조와 서비스에 의존하고 유사한 관심을 가지며, 스스로 공동체라고 생각한 그 지역과 관련된 정체성을 가진다. 지역공동체의 특징은 첫째, 물

리적 또는 지리적 장소에 근거한 사회조직의 형태이다. 둘째, 공동된 지역에 살거나 동일시된 사람들에 초점이 주어진다. 지역공동체가 추구하는 최상의 목적은 지역공동체 구성원을 위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셋째, 상호의존적 공동된 욕구, 공동된 문제, 성장과 발전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넷째, 지역공동체는 개인을 전체사회에 그리고 전체사회를 개인에 연결시키는 중간체이다. 유능한 지역공동체는 모든 구성원들의 적극적 참여에 가치를 두고 참여를 격려하며, 상호부조와 자발적 지원체계를 발전시키는 데 관심이 있다(이연숙, 1995).

현대 사회에서 지리적 영역은 공동체를 가능케 하는 물리적 조건으로 교통과 통신기술이 발달한 단계에서는 의미가 적어질 수 있으나 주거는 일상생활의 근거지이며 인간의 전생애가 이루어지는 장으로서 지속적인 대면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짐을 고려할 때 주거를 기반으로 한 지역공동체는 그 의미가 중요하며 본 연구가 관심을 갖는 개념이다.

다음에서 사회심리학, 지역개발 및 건축학, 주거학, 지역사회운동 분야별로 공동체/지역공동체 연구를 고찰함으로써 본 연구의 개념과 성격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1. 사회심리학 분야

사회심리학적 접근은 공동체의식을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측정함으로써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의식과 형성 요인 등의 규명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역사회 공동체의식이 일정한 지역 내 주민들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형성된다는 전제하에서 인간관계의 변화·발전 과정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의 형성과정을 파악한다. 결국 지역사회구성원과 지역사회 및 조직과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주로 전통의식과 관련하여 한국 고유 공동체의식의 특성을 파악하려는 연구가 이루어졌으며(최재석, 1972; 최협, 1986; 한상복, 1980), 변인연구에 있어서도 공동체 의식과 변인간, 그리고 변인들 상호간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시도도 보이고 있다(김경준·김성수, 1998; 김남선·우룡, 1995).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측정단위에 따라 도구가 세밀하게 개발되어 있지 못하여 공동체 의식과 관련된 이론 및 변인에 대한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고 변인들 상호간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 머물고 있다.

공동체의식 형성에 대하여 김남선(1992: 17)은 공동체 의식은 타고나면서부터 지니고 있는 혈연 또는 지연 등으로부터 나오는 원초적인 공동의식보다 그 지역 사회의 주민들의 사회생활(상호교류)을 통하여 나타난 '획득된 공동의식'을 중요시하였다고 하였다. 송복(1996)은 공동체 의식은 친밀과 정보의 결과이며, 공동체의 기본요소로는 친밀, 정보, 공동행동의 3가지가 있다고 보았다. 즉 친밀한 유대관계를 맺고 서로에 대해 혹은 집단에 대해 충분

한 정보를 갖고 있으면 집단내 개인들은 나(ego)를 극복한 우리(we)의식을 가질 수 있고, 내 개인 욕구에 집착하지 않는 우리라는 덩어리로 용화될 수 있다고 하였다.

공동체의 개념을 측정하고자 한 시도로서 공동체의식의 구성요소를 파악하는 연구에 의하면, 공동체의식의 구성요소는 구성원의식, 상호영향의식, 욕구의 충족과 통합, 정서적 연계의 4가지 요소를 포함하였다(Nasar & Julian, 1995).

공동체의식의 형성과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으로 인구규모와 인구밀도, 이질성, 거주기간, 지역사회 생활에서의 만족도, 지역성, 지역사회참여 등이 중요한 변인으로 파악되어왔다. 특히 최근에는 환경의 공동체 의식에 대한 영향이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Prezzo, Amici, Roberti & Tedeschi, 2001; Nassar & Julian, 1995).

사회심리학적 접근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의식과 그 영향 요인 등을 밝힘으로써 공동체 의식의 개발과 공동체 의식의 강화를 통하여 지역사회 환경과 구성원들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표를 둔다.

2. 지역개발 및 건축학 분야

지역개발 및 건축학적 접근은 물리적·사회적 환경의 개선 및 조성을 통해서 공동체 의식을 형성·촉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생활시설과 주거환경정비계획, 사회적 평등과 건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물리적 제도적 장치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 근원은 18세기 서구사회의 산업화, 도시화 여파로 도시지역의 환경악화와 사회구조의 부조화가 빚어낸 제반 사회병리현상에 대한 치유책의 하나로 등장한 도시계획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에서 도시계획은 국부적·부분적 치유성격을 가지는 소위 교정적·물리적 계획과 창의적·사회적 계획으로 나눌 수 있다. 교정적·물리적 계획은 도시공학적·도시지리적 관점의 도시계획으로 지역개발, 빈민지구제거 등의 국부적, 부분적, 구체적, 표면적 측면의 치유 목적의 계획이며, 창의적·사회적 계획은 도시사회학 내지 도시계획 관점으로 사회학적 분석을 통해 지역사회의 본질을 이해하고 근린지역조성 등 미래지향적 통찰과 계획을 지향한다(김경준·김성수, 1998).

우리 나라의 경우 근린주구 계획의 과정에서 커뮤니티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 권순복(1989)은 인위적(계획적)으로 도시 공동사회 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요건으로 커뮤니티 규모와 관련되는 커뮤니티 계층구조와 지구(범역)설정, 커뮤니티 주민조직, 커뮤니티 계획수립, 커뮤니티 시설정비, 커뮤니티 시책화의 다섯가지를 들고 있다.

지역공동체 의식을 형성시키는 데 있어서는 지역사회의 물리적 크기에 주목을 하고 있다. 한 경험적 연구에 의하면 아파트내의 공동체는 지역사회의 물리적 크기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근린주구의 1차생활권 크기가 요구되지만 어느

정도의 크기 이상에서는 크기가 적을수록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크기가 클수록 공동체의 활성화 정도는 둔화된다고 보았다(민창기, 1997). 그리하여 Millspaugh는 자연적·지리적 조건, 행정능률의 조건, 행정능률에 적합한 행정단위, 주민이 행정관리에 접근하기 편리한 지역을 들어서 지역사회 단위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였다(민창기, 1997). 즉 “일정한 지역에서 주거를 함께 하는 사람들이 함께 산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직면하는 신변의 일상적 차원의 일들에 관하여 공간, 합의, 연대로부터 발생하는 자주적인 참가 활동으로부터 커뮤니티 의식이 형성된다”는 입장에서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의 형성을 촉진시키고자 한다.

또한 지역공동체성 확보를 위해서는 물리적 기반시설의 확충과 주민들의 사회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한 주거환경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지역단위교육시설을 확보하고 지역문화형성을 중시하며, 특히 보육원·탁아소·노인센터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시설 설치(계기석·천현숙, 2000: 149)와 공동주택계획시 공동생활공간 설치와 공동생활 공간을 둘러싼 주거동의 배치방법을 제안하였다(공동주택연구회, 1997: 14-31; 박철수, 2000; 이규인·이재준·황경희, 1994).

지역개발 및 건축학 분야에서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실용적인 가치를 제공하고 주민들에게 장소적 정체성과 안정감을 제공하는 실체로서 작용할 수 있도록 물리적 계획과 제도적 장치로 구체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3. 주거학 분야

주거학 분야에서는 지역 및 도시를 주거환경의 일부로 보고 가족의 일상생활을 수용하고 그들의 가치와 행동,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환경으로 인식한다. 주거학 분야의 연구는 가족이 건강한 일상 생활을 영위하도록 도울 수 있는 주거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지역공동체 기반의 일상생활과 가정생활 방식을 제시하고 이것이 실천적 생활방식으로 정착되기 위한 관리 방식과 생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맞춘다.

주거학 분야는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과 주거문화로서의 공동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주거문화와 주거환경 측면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주거문화 분야에서는 주거생활과 주거의식(권오정, 2000; 이연숙, 1995; 홍형욱, 2000b)에 초점을 두어 주거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공동체 의식을 다루었다. 홍형욱(1998; 2000b)은 페미니즘 관점에서 개인생활과 공동생활에 편익을 주는 공동육아와 공동가사작업 등의 가정생활 지원 도입 시스템 도입, 서비스 체계 확대를 다룬 생활관리를 강조하였으며, 생활관리의 개념으로 공동체적 활동이 요구되는 부문의 실태(은난순, 1995; 은난순·홍형욱,

1996)에 관한 연구가 있다. 또한 지역공동체 참여의식과 정주성을 높일 수 있는 생활지원 및 상담·공동구매·근린의 안전을 위한 조직 및 훈련 프로그램이 제시되었다(이연숙, 1995; 홍형욱, 2000b). 이와 같은 관리방식과 생활프로그램은 다양한 요구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기혼 취업여성, 자녀양육기 가족, 노인가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주거환경 측면에서 주거와 지역은 일상생활과 가정생활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삶의 질 변화를 지원할 수 있는 중요한 환경이다. 공간계획에서 주민상호간 연대감 증진과 교류를 위한 주민 공유공간(계기석·천현숙, 2000: 148; 이경희, 2000a; 이연숙, 1995)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제까지 공유공간 설치가 획일적인 규제에 따라 계획이 이루어져 주거단지의 거주자들의 특성화된 요구들을 반영시키기 어려운 점을 비판하고(이경희, 1997), 공동주택의 공유공간의 활용방안이 제안되기도 하였다. 또한 이경희(2000b)는 아파트의 주민 공동체생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미국 협동주택의 우리 나라 공동주택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 연구를 하였다.

그밖에 지역주민이용시설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었는데, 새천년준비위원회(2000)는 소생활권 내지 중생활권 단위로 주민의 정보, 문화, 여가, 건강, 교육, 행정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는 통합적인 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역주민들이 기존의 커뮤니티 관련 시설들을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지역주민이용시설로서 “뉴밀레니엄 커뮤니티 센터”를 제안하였다. 또한 권오정·곽인숙·이경희·최재순(2001)은 커뮤니티 센터의 기능을 5가지(관리·행정, 정보·상담, 건강·운동, 여가·문화, 보육·교육)로 유형화하고 각각의 기능별로 사용자 계층(공동, 노인,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센터직원)에 적합한 활동 프로그램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활용하여 주민들간의 이해와 지역공동체 의식을 고양시키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주거학 분야에서는 가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역공동체 의식 증진과 관련되어 공유공간, 지역주민 이용시설과 프로그램이 제시되었으나 연구내용이 공동체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사회경제적인 측면의 논의는 부족한 상황이다.

4. 지역사회 운동 분야

지역사회운동이란 지역사회가 주체가 되어 삶의 현장인 지역사회에서 야기되는 문제 또는 그로 인해서 파괴되는 지역사회를 새롭게 하려는 자구적인 노력으로 볼 수 있는데(박서호, 1993: 26), 지역사회 운동적 접근에서 공동체 의식은 바로 이러한 운동의 과정을 통하여 형성된다는 것이다. 즉, 지역사회운동이란 지역사회의 공동체적 의식과 가치를 이루어 내는 일이며, 또한 공동체 의식과 가치에서 지역사회운동이 출발하는 고리를 갖는데, 공동체 의식과 가치는 지역사회의 물적 토대에서 생기기 때

문에 공동체의식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물적 토대를 살피고 그것의 변화를 통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오래 전부터 있어왔던 계, 두레, 향약 등의 지역공동체적 전통이 있어 왔다. 1990년대 들어 지역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에 초점을 두고 유사한 운동이 진행되었으며 이 운동들은 현대사회의 사회·공간적 관계, 즉 획일화와 부조화, 경쟁과 갈등, 물질화와 소외 등 규범적 측면에 관심을 갖고 있다. 지역에서 직면한 문제를 다루고 있으나, 과거의 물리적 폭력과 억압된 이해관계의 실현을 위한 도시운동(특히 도시빈민운동)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최병두, 1999). 따라서 지역공동체 운동은 생활협동조합운동, 주거공동체운동, 생태공동체운동 등의 형태로 전개되었으며 환경문제, 여성문제, 건강·보건문제, 소비자문제, 교육문제, 탁아문제, 주민자치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이루어졌다(심현천, 2000; 이대수, 1999; 임재연, 1999; 정의영, 1999; 한국도시연구소, 1999: 9-94). 이들은 각 특성에 따른 매개물을 갖고 자체적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의식과 관심을 불러 일으킨다(신명호, 2000; 이호, 1999). 예를 들어 녹색아파트운동은 주거공간환경이라는 매개를 갖고 알뜰장터, 소모임,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지역환경 살리기 운동은 지역자연환경을 매개로 자연생태감시, 어린이 환경학교 운영 등의 활동을 한다. 이를 통하여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자원을 동원하여 운동을 떠나가면서 지역주민들을 공동체로 조직하거나 지역사회 전체를 공동체적 분위기로 변화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 의의를 가진다.

최근 공동체의식 형성을 위한 구체적 운동의 한 형태로 논의되고 있는 공동체문화운동은 나 자신은 물론 발전적인 비전과 자신의 능력과 자질, 이웃과 함께 하는 인식에 대하여 점증적인 희망을 주는 주민공동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결국 지역사회운동은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공동의 유산', '사회적 유산', '집합적 소비재', '공공재', '영향력과 권력의 원천'의 차원에서 발생하는 갖가지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으로 첫째, 공동체가 안고 있는 문제와 주민들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 둘째, 행동의 목표와 우선 순위에 대해 의견일치를 이룰 수 있는 능력, 셋째, 동의된 목표의 수행을 위한 방법과 수단에 대한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능력, 넷째, 필요한 행동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키워가는 자기학습의 방법을 모색해 나아감으로써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상의 분야는 각각 별개로 보다는 상호보완적으로 연구된다. 즉 공동체 지향의 주거문화생활은 공동체의식 형성으로 주민들의 관심을 유발하여 의식을 변화시키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환경적 변화와 함께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며 의식적이고 계획적인 참여에 의해서 보다 잘 이

루어질 수 있는 과정이기도 하다. 결국 공동체의식은 인지(정보), 관심, 계획, 평가, 참여의 과정 등 종합적인 접근을 통하여 보다 잘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III. 지역공동체에 대한 연구의 이론적 접근

지역공동체에 대한 접근방법은 후기 산업사회이후 사회변화에 주된 기능을 발휘하는 특정요인을 중심으로 분화되었다. 다양한 접근방법 가운데 중요한 방법론적 기초를 이루는 관점은 구조기능론적 접근방법, 시스템적 접근방법, 정치경제학적 접근방법, 생태학적 접근방법, 미시사회학적 접근, 사회구성론적 접근방법이다.

지역공동체 연구의 접근방법은 연구논문에 따라 어느 한가지로 분류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논문의 주제를 중심으로 분류하지 않고 접근방법에 초점을 두고 그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는 연구내용과 결과들을 분석하였다.

1. 지역공동체에 대한 구조기능론적 접근방법

구조기능론적 접근은 사회단위들 간의 관계에 유형화된 체계나 힘의 역학관계가 있다고 보는 입장으로 1970년대까지 폭넓게 활용된 접근방법이다. 구조기능론적 접근방법에서 지역공동체는 집단과 조직간의 상호의존적인 체계이며, 공동체의 각 부분들은 전체 공동체의 존속을 위해 분업화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Warren은 지역공동체가 부분체계로서 작용하여 지역사회와 국가에 기능적 관계를 수행함을 강조하였다. 지역공동체 간의 관계는 수평적인 관계로, 광역 지역사회와 국가와의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가 형성된다. 그는 지역공동체가 그 활동영역을 지역사회와 국가로 확대시키면 보다 넓은 지역과 국가체계의 통제를 받게 되어 자율성(autonomy)이 침해되며, 지역의 외부의존도와 자율성은 역관계를 갖는다고 함으로써 인간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공동체 건설에 관심을 가졌다. Warren은 진정한 공동체 구성을 위해서는 일차적 관계강화, 개인과 집단간의 자율성 강화, 생동감 고양, 권력의 적절한 분포, 공동체 참여, 헌신적 활동, 적절한 수준의 이질적 인구구성, 적절한 근린통제, 적절한 수준의 갈등유지라는 9가지 전략을 제시하였다(강대기, 2001: 75).

주성수(2000)는 행정자치부의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정책에 대하여 지역사회 내부의 자치단체와 주민조직이 자치센터의 업무에 함께 지원하는 파트너십 체제 구축을 중요시하였다. 따라서 지역사회 내부에 소속된 모든 기관단체의 참여는 전체 체계의 평형과 성장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보았다. 한편, 특정 지역공동체는 내적으로 부분체계 간에 기능적 관계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는 다른 지역공동체와도 상호의존적 기능 관계를 맺어 보다 넓은 지역사회나 국

가체계를 이룬다(주성수, 2000; 최재원, 1993). 지역공동체 중심의 쓰레기 분리수거, 청소년 폭력예방, 소비자보호와 같은 지역공동체의 부분적인 변화는 공동체 전체의 내적, 외적 구조와 역할에 긴밀히 연관되어 있고(한국도시연구소, 1999), 이러한 기능에 따라 부분체계나 공동체의 구조가 단순하거나 복잡하게 구조화된다.

우룡(1995)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지역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개인의 의지와 지역공동체 의식간의 관계 분석을 통하여 지역공동체 의식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협동적인 주민관계(모임, 행사, 단체, 조직 등)와 지역주민들 간의 협동적 상호작용을 확대시켜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결국, 구조기능적 접근방법에서 보면 지역공동체는 산업화, 도시화라는 사회변동과정에서 파생되는 '인간성 및 도덕성 상실', '사회의 붕괴 및 해체화'라는 사회문제를 극복하고 지역사회 수준에서 지역주민들의 의지성향을 변화시키며 주민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 기능을 한다. 특히 주택단지나 아파트지역에서 이웃간의 정과 지역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고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은 지역사회문제를 극복하는 데 하나의 중요한 전략방안이 된다.

2. 지역공동체에 대한 시스템적 접근방법

시스템적 관점은 전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총체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접근방법이다. 시스템적으로 보면 지역공동체는 사회의 구성요소 중의 하나가 된다. Rubin은 지역공동체를 인간생존에 필요한 물질적, 정신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조직 또는 구조structure로 이해하였다(강대기, 2001: 77). 공동체는 다음의 다섯 가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구성원들 사이에 동류의식을 갖고 인간의 욕구 충족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크지도 작지도 않은 규모를 갖추어야 한다(권순복, 1989). 둘째, 구성원들이 일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적절한 일차관계와 이차관계의 유지가 가능해야 한다(김경준·김성수, 1998; 김남선·우룡, 1995). 셋째, 그 사회에서 문화적 중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집단이나 조직과 같은 제도적 기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전경구, 1998). 최재송(1999)도 공동체가 제도(institution)를 갖춘 하나의 자치단체로 조직화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공동체의 집합적 행동을 위해서는 공동소유권의 존재 외에 집합적 의사결정기구, 결정된 사항들을 외부의 작용없이 시행할 수 있는 자치적 관할기구 등이 제도적으로 구비되어야 한다. 넷째, 특정장소에 상당기간 안정적으로 정착되어야 하며 인구가동이 적은 근린들로 구성되어야 한다(김동우, 1985:19; 김남선·우룡, 1995). 다섯째, 성원들은 최소한 자기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몇 사람의 친구들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즉 공동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인간상호간에 정제성을 인식하고 충분한 자기 실현이 가능해야 한다(Nasar & Julian, 1995).

Kanter는 개인의 참여가 공동체의 결속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개인의 관여를 중요시하였다. 이 견해는 공동체를 모색하는데 자유주의적 계약관계에서 가능하지 않고 상호 헌신하는 규범적 접근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현대인들이 어떻게 상호 배타적이고 공격적인 사회관계에 대처하고 인간본연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시사점을 준다(강대기, 2001: 78). 시민단체에서 진행되는 지역주민운동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고 있는데(이호, 1999) 여기에는 주민들의 현실에 대한 이해가 앞서야 할 것이다.

김남선·김만희(2000)는 지역공동체는 사회자본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사회문화체계, 경제체계, 교육체계, 물적체계로서의 지역사회환경보호 및 공공자원의 관리 등의 여러 가지 하위체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이해하였다.

시스템적 접근에서 보면 근린지역의 형태, 규모, 사회적 제도 및 법규, 개인적 특성 등의 투입요소가 친밀한 이웃관계와 공동체 결속력 등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분석의 성과를 통해 효과적인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3. 지역공동체에 대한 갈등론적 접근방법

갈등론적 접근은 지역공동체의 갈등과 모순에 초점을 맞추었다. 공동체 갈등의 원인은 세 가지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는 경제활동 과정에서 상호이해의 상충으로 발생하는 갈등현상이다. 둘째는 권력과 권위에 관련된 갈등으로 행정기관의 통제력 행사나 지배층의 권력행사에 의한 피지배층의 반발 등이며, 셋째는 문화적 가치와 신념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다. 이러한 갈등상황은 물리적 폭력과 억압된 이해관계의 실현을 위한 우리나라의 도시운동, 특히 도시빈민운동(최병두, 1999)에서 볼 수 있다.

갈등은 다음의 세 가지 유형으로 발전과정을 나누어 이해할 수 있다. 그 첫째는 특수하거나 사소한 공동체의 쟁점이 공동체 전체의 갈등으로 비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쓰레기 수거에 대한 쟁점이 지역공동체의 위생문제와 도시의 환경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한국도시연구소, 1999). 둘째 단순한 공동체의 갈등이 오래 지속되면 예상치 않은 부수적 쟁점들이 출현하여 공동체 전체의 중대한 갈등으로 발전한다. 예컨대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작용하는 물리적 요인인 건물에 대한 하자 문제로 인한 갈등은 1994년에 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에서 공동주택의 내부 구조부의 하자보수기간을 종래의 1년 또는 2년에서 5년 또는 10년으로 연장하도록 규정하게 하고 있다(민창기, 1997). 이렇게 되는 까닭은 하나의 공동체 사안은 많은 다른 공동체의 문제들과 관련되어 있어서 상호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갈등관계는 상대방에서 고의적으로 쟁점을 부각시켜 자신들의 유리

한 입지를 확보하려 하기 때문에 갈등은 확대된다. 세 번째,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적대감을 고조시켜 나가게 되어 갈등이 심화된다.

갈등은 개인적 속성에 기초하는데 Coleman은 인간을 여러 종류의 정도가 다른 밀착관계에 있는 존재로 본다. 개인은 타인이나 집단, 조직, 지위, 권력 또는 가치와 신념에 밀착되어 있다. 이러한 개인적 속성으로서의 사회적 환경에 대한 밀착은 다른 사람들과의 연계를 의미하여 특정한 사건으로 인한 개인적 갈등은 불가피하게 타인이나 다른 집단을 갈등관계에 개입시킨다(강대기, 200: 86).

갈등론적 입장에서 보면 개인과 지역간의 갈등, 지역과 지역간의 갈등은 사회관계의 본질적 현상으로 필연적이며, 갈등을 통한 지역사회문제의 해결은 기능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4. 지역공동체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방법

생태학적 접근방법은 지구상의 모든 존재는 서로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상호작용적인 존재임을 기본전제로 하여 유기체와 무기물 그리고 개인과 집단 모두를 포함하여 이들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분석한다(유병선·홍형욱, 2000)

도시생태학자들은 지역공동체를 대도시 부분체계로 보아 그 기능을 체계들간의 경쟁관계에서 파악하였다. Wirth는 전통적 공동체가 언젠가는 완전히 해체될 것이라고 하였다. 도시사회의 구조는 도시민들의 생활방식을 바꾸고, 특히 도시의 인구규모, 인구밀도, 인구의 이질성의 세 구조적 요인들이 상호작용하여 전일적인 개인의 인격을 특수목적 지향으로 단편화시킨다고 보았고, 인간은 서로 부분적으로만 관계를 가지며 상호정서적 연대는 불가능해진다고 했다. 그러나 Gans는 인간은 도시규모가 아무리 크더라도 가정, 직장, 이웃에서 한정된 사람들과 만나며, 이들과의 관계가 실질적인 공동체의 구성요소로 작용한다고 보면서 Wirth의 해체론에 반박하였다. 그는 경험적 관찰을 통하여 도시에서 사회관계는 인종이나 문화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동류집단의 성원들과 보다 큰 친화력을 가지며 특수한 목적 달성이나 집단의 방어를 위해 특정 부류의 사람들과 상호작용함을 확인하였다(강대기, 2001: 92-93). 우리나라에서도 경험적 연구에 의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지역 중 대도시에서 전통적인 공동체가 가장 약하게 조사되었으며 지리적으로 대도시에서 멀어질수록 공동체의식이 강하게 형성되었다(김경준·김성수, 1998).

생태학적 접근방법에서 보면, 지역내의 공동체는 지역내의 다른 공동체나 지역외의 공동체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지역내의 공동체는 부녀회, 노인회, 청년회 등의 조직이 있어서 각종 모임을 조직함으로써 주민전체가 지역사회 개발을 위하여 협동하도록 격려되고 있었다(조홍식, 1993). 따라서 생태학적 접근 방법에서는 조직간의 상

호영향에 의한 융성과 쇠퇴의 과정과 결과에 관심을 가진다.

5. 지역공동체에 대한 미시사회학적 접근방법

대부분의 공동체에 대한 연구는 공동체를 개인의 속성이 아니라 집합현상이라고 보고 구조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는 거시적 현상에 초점이 맞춰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집합현상은 구조로만 파악될 수 있는 실체가 아니라 개인들의 집합적 활동과정으로 이해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모든 공동체의 궁극적 목표가 공생과 자아실현을 위한 삶의 장의 마련이고 이것은 인간의 기본욕구와 일치한다고 볼 때 직접적으로 인간의 욕구와 개인의 상호작용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미시적 차원에서 인간이 왜 공동체를 추구하는가에 대한 인간의 공동체적 욕구와 동기의 파악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접근에서 개인은 상호작용을 추구하며 나아가 집합적 수준의 공동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행위 동기가 원동력이 강조된다. 공동체의 구조적 형태는 변화해 왔으나 인간들이 추구하는 공동체의 기본적인 기능, 즉 생존을 위한 욕구충족과 자아를 실현하려는 개인들의 노력은 지속되어 왔다. 욕구는 시대에 따라 변하는 공동체 구조와는 달리 비교적 시공을 초월하여 지속하는 힘으로, 공동체적 결합의 기본 동기이다. 인간이 공동체를 이루려는 기본욕구는 세 가지 형태로 이해되는데 그 하나는 신체적 생존을 보존하기 위한 생리적 욕구이며 다른 하나는 자신의 사회문화적 존재가치를 표현하려는 사회적 요구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는 자아실현의 욕구이다. 인간은 생존을 위하여 가족, 또래집단, 이웃, 지역사회, 국가를 이루며 살아왔다. 개인의 자아실현은 거의 전적으로 사회적 가치지향과 규범적 수단에 의해 성취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인간관계는 생존 욕구와 사회적 자아실현의 기본적 욕구가 조정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사회적 규범과 가치체계가 강화된 상황에서 신체적 욕구는 억제되고 자아실현의 욕구가 강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사회적 아노미 상태나 생존을 위한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는 자아실현의 욕구가 유보되며 생존을 위한 욕구가 사회관계를 지배한다.

미시사회학적 접근방법에서 인간의 욕구충족과 자아실현의 조정에서 비롯된 공동체 욕구에 대한 설명은 현대사회에서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 산업화, 도시화의 영향으로 경쟁적인 생계활동을 강조하다가 1980년대 후반부터 가정경제가 안정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가와 환경, 인권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또한, 미시사회학적 접근방법은 개별가구를 미시사회로 보고, 사회와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개별가구의 주거현상을 파악하고 있다. 가족을 중심으로 하여 사회와의 상호

작용 속에서 나타나는 일상적 활동을 연구하며, 가족을 행위의 주체로 보고, 가족 외적인 사회경제적 구조나 제도적인 측면은 가족의 능동적인 행동에 제약이 되는 것으로 간주한다(Morris & Winter, 1978). 미시적 수준의 생활세계의 변화가 생활양식을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보는 견해는 대중사회에서는 거주기간과 주택소유여부가 근린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경험적 연구를 통해 확인하기도 하였다(김남선·우룡, 1995; 김정선·박순진, 1993). 김남선·우룡(1995)는 공동체의식을 측정하는데 주거관련 특성 변인 중 주택유형별로는 단독주택 주민들이 아파트 및 연립주택 주민들보다 공동체 수준이 높은 것으로 조사하였다. 또한 김경준·김성수(1998)는 주민의 지역사회 활동참여, 주민관계참여, 주민평가, 지역사회만족도, 지역사회인지도가 지역사회공동체의식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았다.

지역공동체에 대한 미시사회학적 접근은 가족을 중심으로 지역공동체 의식의 구성요소, 의식과 변인들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의식을 형성하고 강화하는데 적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지역내의 거주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은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므로 거주자들의 지역공동체 관심도를 높이고, 이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태도를 갖도록 홍보하고 교육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6. 지역공동체에 대한 사회구성론적 접근방법

사회구성론은 상징적 상호작용론과 현상학적 관점을 통합하여 공동체를 지역적인 단위나 사회집단으로 인식하기보다는 형이상학적 차원의 심정적, 이데올로기적 통일체로 인식한다. 이러한 시각은 공동체의 속성을 이해하기 위한 분석적 차원이며 실재에서 심정적, 이데올로기적 현상은 공동체 구조의 일부분이며 구조적 특성을 나타내는 요소로 작용한다(강대기, 2001: 104).

Gusfield는 규범적 측면의 공동체는 실재와 상관없이 심리적 상태로 나타나 이상적인 인간관계의 목표나 이상이 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공동체 성원들이 관념적으로 구성된 상징체계는 실재와 관계없이 인간관계의 유형을 유도하거나 규제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Suttles는 공동체를 인지적 구성물로 보았다. 인간은 주관적 인지활동을 통하여 공간적 영역을 사용하고 주거지를 설명하며,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공유의 생활세계를 형성시킨다. 그는 이러한 과정을 인간의 인지적 구조화로 보아 대부분의 생태학자나 기능론자들의 형태학적 또는 구조론적 접근을 배제했다(강대기, 2001: 104-106).

특히 우리 나라의 지역환경운동은 행위와 구조를 서로 변증법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인식하고 Giddens등에 제시된 '사회구성론'에서 그 틀을 찾고 있다(최병두·이근행,

1999: 7-8). 지역환경운동은 그 운동을 수행하는 주체들의 실천적 의지와 활동전략에 크게 좌우되는데, 이는 외적 환경인 사회적 조건에 의해 규정된다고 본다. 지역환경운동의 사회적 조건은 첫째, 일정지역에서의 환경문제를 유발하는 사회경제적 및 공간(환경)적 조건, 둘째,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이에 대응하고자 하는 의지를 규정하는 사회문화적 및 규범적 조건(생활상의 가치와 이해관계), 셋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운동의 이념과 전략 설정과 관련된 정치제도적 및 시민사회적 조건으로 구분된다. 지역환경운동과 그 사회적 조건들 간의 관계를 개념화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환경운동의 사회적 조건은 행위자로서 주민의 의식과 이에 따른 실천적 운동을 일방적으로 제약하기보다는 일정한 제약 내에서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조건들은 그 자체로서 존재하고 변화하기보다는 행위자들에 의해 수행되는 행위의 의도적 및 비의도적 결과로서 생산되고 재생산된 것이다. 둘째, 일정 지역 내에서 생활하는 행위자들의 의식과 활동은 이러한 사회적 조건에 의해 의식적 및 무의식적으로 규정된다. 지역환경운동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은 정치제도 및 시민사회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의도한 실천적 전략을 구사하고자 한다. 셋째, 이와 같은 지역환경운동의 사회적 조건들과 행위자들의 실천은 변증법적으로 상호관련된다. 결국 사회구성론에 의하면, 지역의 사회 및 환경은 주민들의 환경적 실천, 즉 지역환경운동에 의해 변화·발전하며 이러한 지역의 사회적·환경적 발전은 주민들의 의식과 실천, 나아가 지역환경운동을 향상시켜 나간다고 본다.

사회구성론적 접근 방법에서 지역공동체를 다룬 논문은 거의 없다. 이 접근방법은 자율적 의지가 있는 개인(행위)과 사회적 조건(구조)이 서로 변증법적으로 관련됨으로써 개인의 공동체 의식과 실천이 나아가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때, 자율적 개인을 통한 사회변화라는 측면에서 지역공동체 형성을 연구하는데 유용한 이론적 틀이 될 것으로 추측된다.

IV. 요약 및 결론

최근 사회문제 해결의 한 방편으로서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다뤄지고 있다. 특히 지역공동체에 대한 논의는 가족의 일상생활의 중심 역할을 하는 주거와 지리적 인접성 등 지역에 기초한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오늘날 아파트는 현대인의 주거형태에서 보편화된 형태로서 지역에 기반을 두기 쉬운 여건을 갖춘 지역공동체의 잠재성을 가진 단위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주거 지역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 문화의 차원에서 지역공동체의 개념으로부터 탐색해보고, 지역공동

체 분석을 위한 분야별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그 경향이 어떻게 다르고 그동안 어떤 이론적 접근방법이 이용되어 왔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지역공동체에 관한 논의는 주로 사회심리학 분야, 지역개발 및 건축학 분야, 그리고 주거학 분야, 지역사회운동 분야에서 다뤄져왔다. 사회심리학분야에서는 공동체 의식의 형성 과정과 공동체 의식의 구성요소를 밝히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동체 의식과 변인간, 그리고 변인들 상호간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시도를 하였다. 또한 전통의식과 관련하여 한국 고유 공동체 의식의 특성을 파악하고 있으나, 공동체 의식을 측정하려는 시도는 거의 없다.

지역개발 및 건축학 분야에서는 정주권을 중심으로 사회적·물리적 환경과 지역공동체와의 관련성에 초점을 맞춰 생활 시설과 환경정비 계획, 특히 공유공간의 환경개선을 통하여 지역공동체 의식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물리적 계획과 제도적 장치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주거학 분야에서는 지역 및 도시를 주거환경의 일부로 보고 가족의 주거생활 향상과 올바른 주거문화로서의 공동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주거생활과 주거환경 측면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전자는 주거생활과 주거의식에 초점을 두어 주거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공동체 의식을 다루었다. 페미니즘 관점에서 공동육아와 공동가사작업 등의 가정생활지원 도입 시스템 도입, 서비스 체계 확대를 다룬 생활관리와 프로그램이 제시되었다. 후자는 공간계획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가족의 삶의 질 변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으로서 주민상호간 연대감 증진과 교류를 위한 근린주구 계획, 다양한 요구를 가진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주민 공유공간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지역사회운동 분야에서는 학문적 연구분야는 아니지만, 사회운동의 일부로서 지역공동체의 실천으로 연결된다.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는 지역사회가 주체가 되어 현장에서 야기되는 문제를 지역공동체 의식이라는 운동의 과정을 통하여 해결해나가고자 한다. 1990년대 들어 시민운동이 빠른 속도로 조직화되어 환경문제, 여성문제, 건강·보건문제, 의식개혁, 청년운동, 소비자문제, 교육문제, 탁아문제, 주민자치, 인간화실현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전개되고 있다. 또한, 지역에서의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넓어지면서 주민운동형태로, 지역에 근거한 소비공동체 운동, 주거환경공동체운동, 자연환경공동체운동 등 다양한 환경공동체적 프로그램이 시도되었다.

지역공동체는 각각 별개로 연구되기보다는 각 학문분야에서 상호보완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공동체 지향의 주거문화생활은 지역주민들의 사회적 관계와 이들을 통합시키거나 또는 이들이 실현시키고자 하는 규범적 목적에 초점을 두면서 물리적 환경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내용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의식적이고 계

획적인 참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2. 지역공동체연구는 다양한 관점들이 이용되고는 있었으나 각각의 방법들이 사회적 또는 개인적 맥락 속에서 이해되고 있었다. 각 연구들의 접근방법에 대한 쟁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조기능론적 접근방법에서 특정 지역공동체는 타지역과 상호 기능적 관계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상호의존적 기능관계를 맺어 보다 넓은 지역사회와 국가체계를 이루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쓰레기 분리수거, 청소년폭력 예방, 소비자 보호문제는 지역공동체의 부분적 변화를 통해 전체의 변화로 이어지면서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주택단지나 아파트 지역에서 이웃간의 정과 지역공동체 의식을 형성 및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은 전체 지역사회문제를 극복하는데 중요한 전략방안이 된다.

시스템적 접근방법에서 지역공동체는 사회의 구성요소 중 하나이며 가족과 개인도 지역공동체 구성요소가 된다. 이 접근방법은 근린지역의 형태, 규모, 사회적 제도 및 법규, 개인적 특성 등을 투입하여 과정을 거쳐 이웃관계와 공동체 형성 등의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분석의 결과를 통해 효과적인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갈등론적 접근방법은 지역공동체의 갈등과 모순에 초점을 두고 갈등상황은 다른 갈등상황으로 발전된다고 본다. 지역의 쓰레기 수거에 대한 쟁점은 지역공동체의 위생문제와 도시 환경문제로 발전할 수 있으며, 아파트 하자 문제에 대한 갈등은 아파트 관련 제도와 법규의 중대한 갈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 따라서 개인과 지역간, 지역과 지역간의 갈등은 사회관계의 본질적 현상이며 갈등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생태학적 접근방법에서 보면, 지역내의 공동체는 지역내의 다른 공동체나 지역외의 공동체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부녀회, 노인회, 청년회 등의 조직이 각종 모임을 조직함으로써 주민전체가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협동하도록 격려되고 있다.

미시사회학적 접근방법은 개인의 속성과 개별가구에 초점이 맞춰지며 지역공동체에 대한 욕구, 태도, 만족의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연구한다. 이 관점에서 보면 지역공동체는 개인과 가족의 욕구 실현이 된다. 이 접근방법은 지역공동체 의식의 구성요소, 의식과 변인들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함으로써 지역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데 유용한 자료로서 사용될 수 있다.

사회구성론적 접근방법은 행위와 구조를 서로 변증법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인식한다. 지역공동체 형성에 개인의 실천적 의지와 활동전략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외적 사회적 조건에 규정되지만 사회적 조건은 그 자체로서 존재하고 변화하기보다는 행위자들에 의해 수행되는 행위의 의도적 및 비의도적 결과로서 생산되고 재생산된다. 따라서 자율적 개인을 통한 사회적 조건 변화라는 관

점은 주민운동이나 지역공동체 형성을 연구하는데 유용한 이론적 틀을 제공할 수 있다.

3. 오늘날 지역공동체는 강한 공통의 연대나 친근감보다는 경제적 이해나 개인과 집단의 특수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참여하며 책임감을 가지지 않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문제가 발생하거나 필요로 할 때 사람들은 상호결합하고 지역성원으로 정체성을 확인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지역공동체의 출현은 기존의 접근방법으로 이해될 수 없고, 주거를 기반으로 한 지역공동체에 대한 연구는 다차원적인 특성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역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실에 초점을 두고 다양한 연구분야와 접근방법을 적용시켜야 할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의 아파트 지역공동체에 대한 이해는 공동체 규범 설정, 주거관리, 공동생활공간 계획, 프로그램 개발 측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주택관련정책과 제도의 변화, 향후 아파트 주거생활의 변화에 매우 중요한 연결고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접수일 : 2001년 11월 15일

□ 심사완료일 : 2001년 12월 7일

【참 고 문 헌】

- 장대기(2001). 현대사회에서 공동체는 가능한가. 서울 : 아카넷.
- 계기석·천현숙(2000). 커뮤니티 중심의 주거환경 정비 연구. 경기 : 국토연구원.
- 공동주택연구회(1997). 도시집합주택의 계획. 서울 : 발언.
- 권순복(1989). 도시공동사회의 형성과 발전방향 연구. 한양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권오정(2000). 공동생활 속에서 내구재 재사용. 더불어 사는 주거 만들기. 서울 : 보성각, 50-69.
- 권오정·박인숙·이경희·최재순(2001). 새천년의 주민복지를 위한 커뮤니티 센터의 활동프로그램 제안. 대한가정학회지 39(8), 19-35.
- 김경준·김성수(1998). 지역사회 주민의 공동체의식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개발연구 23(2), 211-232.
- 김남선·김만희(2000). 지역공동체와 사회자본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개발학술지 10, 1-30.
- 김남선(1992). 지역사회개발학개론. 서울 : 형성출판사.
- 김남선·우룡(1995). 아파트단지 주민의 공동체의식형성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개발연구 20(1), 93-110.
- 김동우(1985). 대단위 아파트지역의 이웃관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선·박순진(1993). 근린관계와 지역공동체. 집합주거와 사회환경.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부.
- 대한주택공사(1993). 주택핸드북. 서울 : 대한주택공사.
- 대한주택공사(1996). 주택통계편람. 서울 : 대한주택공사.
- 민창기(1997). 아파트 지역 사회의 공동체 활성화 방안 : 평택 지역의 실험연구. 지역사회개발연구 22(2), 65-89.
- 박서호(1993). 지역사회운동을 통한 공동체의식 형성 방안. 지역 사회 개발을 위한 공동체의식 함양 방안. 대전: 한국지역사회개발협회.
- 박철수(2000). 공유공간과 공동체-아파트공동체 실현을 위한 공동생활공간 확대방안. 도시연구 6. 한국도시연구소, 82-97.
- 새천년준비위원회(2000). 뉴 밀레니엄 커뮤니티 센터 모델 개발. 새천년정책 연구보고서Ⅱ.
- 송 복(1996). 세계화 전략으로서의 공동체 재건. 민주공동체 시민운동의 이론과 실제. 서울 : 공보처, 51-77.
- 신명호(2000). 도시 공동체 운동의 현황과 전망. 도시연구 6. 한국도시연구소, 51-81.
- 심현천(2000). 아파트 공동체 운동. 도시연구 6. 한국도시연구소, 98-114.
- 우 룡(1995). 개인의 의지와 지역공동체의식간의 관계분석. 지역사회개발학술지 5, 118-139.
- 유병선·홍형욱(2000). 주거관리의 사회적 구축을 위한 연구의 접근방법과 쟁점. 주택연구 8(1), 27-57.
- 은난순(1995). 공동주택 생활관리 만족 및 요구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은난순·홍형욱(1996). 공동주택 생활관리 인지척도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주거학회지 7(1), 55-62.
- 이경희(1997). 여성과 거주환경. 시민의 도시. 서울 : 경실련도시개혁센터.
- 이경희(2000a). 공동주택의 공유공간 : 무엇이 문제인가. 더불어 사는 주거 만들기. 서울 : 보성각, 87-102.
- 이경희(2000b). 공동주택 개발에 있어서 서구의 협동주택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8(2), 185-202.
- 이규인·이재준·황경희(1994). 주거단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배치계획 연구. 국토계획 29(4), 211-222.
- 이대수(1999). 군포환경자치시민회의 뿌리 내리기. 도시와 빈곤 41, 58-68.
- 이연복(1999). 대도시 가족의 주거생활 유형에 관한 연구-유형화와 주거조절행동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연숙(1995). 공동체 생활문화 육성을 위한 한국의 미래주택 개발 방향. 21세기 공동체 생활문화육성을 위한 다학제적 접근. 연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학술대회집, 63-108.
- 이 호(1999). 주민운동의 이론과 실제. 도시와 빈곤 41, 5-24.
- 임재연(1999). 안양시민대학의 지역교육운동. 도시와 빈곤 41, 99-106.
- 전경구(1998). 주민참여형 근린개발과 도시근린공동체. 지역사회개발연구 23(2), 103-128.
- 정외영(1999). '녹색삶을 위한 여성들의 모임'의 지역조직활동. 도시와 빈곤 41, 69-81.
- 조홍식(1993). 주민공동체 육성을 위한 면단위 복지회관의 역할. 지역사회개발학술지 3, 234.
- 주성수(2000). 주민자치센터와 민관파트너십의 정착. 도시와 빈곤 45. 한국도시연구소, 16-21.
- 최병두(1999). 도시공동체의 복원을 위한 아파트 주민운동. 문화, 환경 그리고 도시 "새 밀레니엄을 위한 도시담론과 정책". 한국도시연구소 연례 심포지움 자료집, 25-50.
- 최병두·이근행(1999). 주민환경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조건에 관한 연구. 서울 : 한국도시연구소.
- 최재송(1999). 도시지역 주거공동체의 이론적 성격과 공동체 행정을 위한 제도적 방안. 지방행정연구 13(1), 103-126

- 최재원(1993). 주민공동체와 지역사회개발. 제3회 지역사회개발 학술발표대회 주제 발표집. 한국지역사회개발협회, 183-199.
- 최협(1986). 한국사회. 공동체. 공동체인념. 한국사회학 20, 15-33.
- 한상복(1980). 한국인의 공동체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의 사회와 문화Ⅲ. 성남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한국도시연구소(1999). 도시에서 지역환경공동체만들기 조사연구. 서울 : 한국도시연구소.
- 홍형욱(1992). 한국주거사. 서울 : 민음사.
- 홍형욱(1998). 주거와 삶의 질, 삶의 질과 환경디자인-개인·가족·사회를 위한 환경디자인. 서울 : 연세대학교출판부, 183-209.
- 홍형욱(2000a). 건강한 삶의 질 모색을 위한 과제. 21세기의 환경과 도시. 서울 : 민음사. 135-161.
- 홍형욱(2000b). 공동주택의 생활관리가 왜 중요할까, 더불어 사는 주거 만들기. 서울 : 보성각. 103-124.
- 황한식(1997). 대도시 정주권 주민생활공동체의 발전 전략(1)-부산지역 아파트 단지 공동생활권의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여성학연구 7(1), 117-152
- Nasar, J.L. & Julian, D.(1995). The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in the neighborhood.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61, 178-184.
- Morris, E. & Winter, M.(1978). *Family, Housing, and Society*, New York : John Wiley & Sons.
- Prezzo, M., Amici, M., Roberti, T., & Tedeschi, G.(2001). Sense of community referred to the whole town: Its relations with neighboring, loneliness, life satisfaction and area of residence.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9(1), 29-52.
- 통계청. www.nso.go.kr